

신문협회보

제611호 2019년 2월 16일

전화 02-733-2251

www.presskorea.or.kr

- 가장 좋은 적금, 신문 읽는 지금
- 정보의 풍량 속에서, 시대의 중심을 지킵니다
- 세상이 답답할 때 신문은 답합니다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복지부 ‘신문협회 NIE패스포트’ 후원한다

〈여권 모양을 본떠 만든 NIE 워크북〉

신문협회 –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공동 추진

‘청소년 자존감과 사회적 소통능력’ 주제로

신문협회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청소년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인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 사업을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공동 추진한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발족한 민관 협력기구로, 현재 신문협회를 비롯해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문협회와 협의회가 NIE 패스포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올해 NIE 패스포트의 주제로 ‘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통능력 배양(가칭)’으로 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여학생 중 14.9%, 남학생 중 9.5%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청소년의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양 기관은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의미와 인간 존엄성을 자연스럽게 자각할 수 있도록 NIE 패스포트를 제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NIE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적응능력, 사회적 교류·소통능력 등을 키우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교양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 NIE 패스포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의 존귀함과 자아실현 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NIE 같이 하고 싶다”

NIE 패스포트는 일반 여권 모양을 본떠 만든 NIE 워크북으로 국가적 과제나 사회적 현안 및 이슈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인성을 함양하고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신문협회가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 NIE 사업이다.

역대 NIE 패스포트 주제 및 공동주최 현황

연도	주제/공동주최	연도	주제/공동주최
2006	월드컵 패스포트	2013	스포츠·문화산업 패스포트
2008	올림픽 패스포트	2014	월드컵 패스포트
2009	숫자와 신문 패스포트	2015	진로와 직업 패스포트
2010	선거와 신문 패스포트/중앙선관위	2016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재해구호협회
2011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재해구호협회	2017	민주시민역량과 선거 패스포트/중앙선관위
2012	인성함양 패스포트/여성가족부	2018	풀뿌리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중앙선관위

신문협회 NIE 패스포트 프로그램은 그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교육적 효과가 높은 활동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복지부 사례를 비롯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공익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NIE 패스포트 프로그램에 동참한 이유이다.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NIE 패스포트는 다양한 활동과제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신문 지면에서 정보를 찾아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데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신문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선거와 민주주의(2010년)’, ‘민주시민역량과 선거(2017년)’, ‘풀뿌리민주주의와 선거(2018년)’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는 ‘재난과 나눔(2011년)’, ‘재난안전교육(2016년)’으로, 여성가족부와는 ‘인성함양(2012년)’을 주제로 공동 사업을 펼쳤다.

이번 NIE 패스포트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만부를 제작해 6월초에 일선 학교, 가정, 교육 및 NIE 관련단체, 도서관 등에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美 종이신문 구독료 8년 간 2배로 올랐다

2008년 217달러→2016년 510달러

구독료 담보 상태인 우리와 반대 현상

미국 일간지의 가구 구독료가 10년 전보다 2배로 올랐다는 조사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는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저널리즘 스쿨 소속 아이리스 차이(Iris Chyi)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2008~2016년 미국 신문의 구독료 인상에 대한 연구(Charging More and Wondering Why Readership Declined? A Longitudinal Study of U.S. Newspapers’ Price Hikes, 2008-2016)’ 결과다.

독자, 연간 평균

293달러(약 33만 원) 더 지불

연구팀이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25개 주요 일간신문의 구독료 변화를 연구한 결과, 연평균 가구 구독료는 2008년 217달러(한화 약 25만 원)에서 2016년 510달러(한화 약

57만 원)로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입장에서는 똑같은 신문을 8년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293달러(한화 약 33만 원)를 더 지불하면서 구독하고 있는 셈이다.

구독료 인상폭이 가장 큰 신문은 LA 타임스로, 2008년 104달러에서 2016년 624달러로 6배로 인상됐다. 뉴욕타임스는 530달러에서 978달러로 448달러가, 월스트리트저널은 249달러에서 525달러로 276달러가 각각 인상됐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국내 신문사는 같은 기간(2008~2016년) 구독료가 소폭 오르거나 아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종합일간지 17개사 조사 결과,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한 신문사는 2개사(경향, 한겨레),

1만7000원에서 2만원은 1개사(전지), 나머지 14개사는 아예 구독료 변화가 없었다. 조사기간 이후인 2018년 7월과 2019년 1월에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3개사가 구독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이 전부다.

연구팀, “독자 충성도가 높아져 가격 인상이 구독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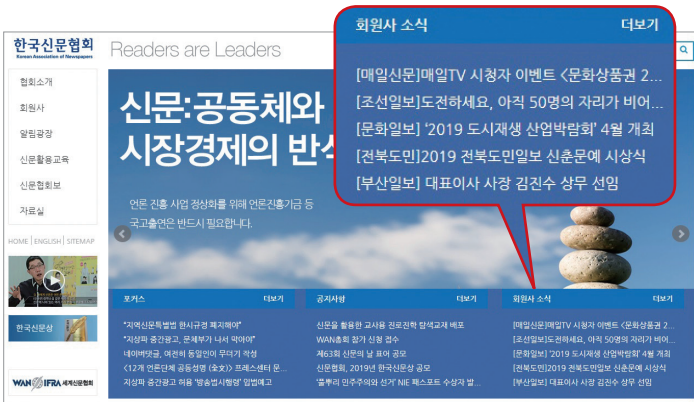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니먼랩은 “경기 침체기 광고 수입이 급감했을 때 신문사는 구독료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며 “종이신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현명한 행동(smart move)’”이라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가 구독료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Inelastic)’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비탄력적’이란 독자의 충성도가 높아 가격 인상이 구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독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구독자의 3분의 2는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구독을 계속 유지했다고 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

독료를 올리는 전략은 근시안적이며, 장기적으로 신문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며 “디지털 실험으로 (지면과 디지털에 대한) 독자 선호도를 재평가해 선호하는 플랫폼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회원사소식, 협회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신문협회는 회원사의 행사, 사업, 활동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 ‘회원사 소식’ 게시판에 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 노출을 원하는 회원사는 각 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행사, 세미나, 사업 및 활동, 인사·부음 등)의 제목과 링크주소를 협회 메일(webmaster@presskorea.or.kr)로 보내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 소식을 클릭하면 해당 회원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된다.

“지역신문지원법 일반법으로 바뀌달라”

대신협 회장단, 국회 문체위원장 만나 요청

안민석 위원장,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회장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발행인) 회장단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의 일반법 개정 등 지역신문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신협 회장단은 “2004년 제정된 지발법이 5년 단위 한시법 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도 어

려움이 있다”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처럼 일반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지역방송지원은 한시 규정이 없는데 지역신문지원에는 한시 규정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경우 2014년 6월 3일 법 제정 당시부터 한시 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다.

회장단은 또 “지난해 5월 정부 광고법 제정으로 수십년간 현안이

되어온 (정부광고)수수료 및 홍보매체 선정에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기준의 정부광고매체 선정기준 외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에도 정부광고가 우선 배정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 300억 원대에 이르던 지역신문지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는 70억 원대로 줄었다”며 “당초 법 취지대로 지역신문사들의 난립을 제어하고 건전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발법 우선지원기

준을 충족하는 신문사 위주로 사업비 지원 및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신문협회, 지속적으로 일반법 전환 요구

지발법의 상시법 전환은 신문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다.

신문협회는 2017년 6월, 2018년 6월 문체부에 제출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 등에서

“지역신문이 보편적 정보 접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발법은 하루빨리 ‘상시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언론학자·법학자·지역신문인·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가 79%는 설문조사에서 현행 지발법의 ‘한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시기구로 전환

신문법 시행령 1월말 개정 시행

미디어의 여론집중도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조사·자문을 위해 2010년 신문법에 근거해 설립된 여

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여집위)가 상시기구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

를 열고 여집위의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신설했다. 위원 구성은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했다.

“여집위, ‘정책생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협회 의견 반영 안돼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여집위를 조사기구에서 디지털 뉴스 유통 생태계 정상화 등을 위한 ‘정책생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문협회의 주장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7월 문체부에 제출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존 여집위의 기능과 역할로는 포털 중심의 여론집중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며 “여집위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취지에 부응하려면 여집위를 ‘조사기구’에서 디지털 뉴스 유통 생태계 정상화와 저널리즘 가치 복원을 위한 ‘정책생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현재 대부분의 뉴스 소비가 포털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론집중도조사에서 포털 내 뉴스 이용 데이터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며 “위원회는 정확한 매체별 여론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포털에 전체 뉴스 이용 현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털 뉴스면에서 이뤄지는 뉴스 이용 뿐 아니라 검색, 커뮤니티 등 포털 모든 영역에서의 뉴스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포털이 자료 제출을 거부 시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신문협회보 제 597호 참조).

‘남으로…’

한국보도사진 대상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 대상에 동아일보 원대연 기자의 ‘남으로…’를 선정했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9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유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월경했다가 다시 손을 맞잡고 남측 지역으로 건너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은 3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신문협회 이사회·정기총회

2월 28일,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협회는 2월 28일과 3월 21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해 정기총회에 부의한다. 공식인 부회장 보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3월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등이 최종 확정된다.

저(低)신뢰 뉴스사이트에 ‘빨간불’ 표시 달린다

MS, 모바일 브라우저에 가짜뉴스 탐지 기능 탑재
9개 요소로 사람이 직접 뉴스사이트 신뢰도 평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신뢰할 수 없는 뉴스 사이트에 ‘빨간불’ 표시를 달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초 안드로이드 및 iOS용 모바일 브라우저인 엣지(Edge)에 ‘뉴스가드(NewsGuard)’라는 가짜뉴스 탐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는 ‘초록불(green)’ 표시를, 그렇지 못한 사이트에는 ‘빨간불(red)’ 표시를 달아 구별하도록 했다.

초록불은 ‘정확성 및 책임성에 대한 기본 기준’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언론사 사이트를 의미한다. 빨간불로 표시되는 언론사 사이트는 항상 정확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회색은 아직 뉴스가드가 평가하지 않은 언론사 사이트다. 등급은 해당 웹 사이트 주소 앞에 방패 형태(사진)로 표시된다.

신뢰도 평가는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 직접 수행

뉴스가드의 평가는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 직접 수행하며, 아래 9가지 요소에 대한 점수를 매겨 60

점 미만이면 ‘빨간불’ 등급을 받게 된다.

〈신뢰성 기준〉

- ① 허위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지 않음(22점)
- ② 책임감 있게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함(18점)
- ③ 오류를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명확히 밝힘(12.5점)
- ④ 뉴스와 의견을 구별해 다룸(12.5점)
- ⑤ 기만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지 않음(10점)

〈투명성 기준〉

- ⑥ 사이트의 소유 및 자금 구조를 공개함(7.5점)
- ⑦ 광고임을 분명하게 표시함(7.5점)
- ⑧ 책임자 및 이해 관계자를 밝힘(6점)
- ⑨ 기사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및 인물 정보를 공개함(6점)

①~⑨ 순서는 빨간불 등급 결정에 중요한 순서다. 뉴스가드 측은 항목별 가중치는 언론사 등의 피드백이나 평가 프로세스 개발 등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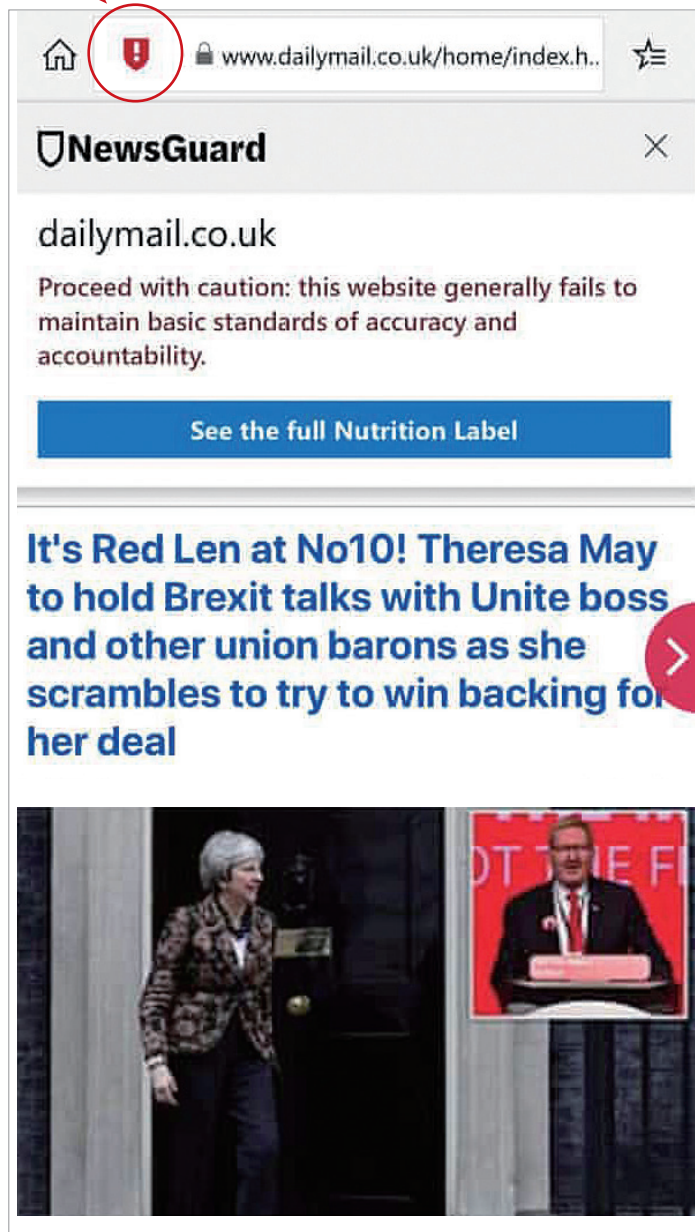
등급이 표시되는 방패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의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언론사 소유주, 재정상태, 신뢰성 및 투명도 등 뉴스가드의 사이트 판단 결과가 표시된다.

뉴스가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이며, 사용자가 브라우저 설정 메뉴에서 활성화로 전환하면 작동된다.

현재 뉴스가드의 등급 평가는 미국 기반 뉴스사이트에 집중돼 있지만 해외 주요 사이트도 일부 포함돼 있다. 현재(1월 23일)까지 ‘초록불’ 평가를 받은 언론사는 가디언, 인디펜던트, 파이낸셜타임스, 버즈피드 뉴스 등이다. 반면 영국 데일리 메일의 웹사이트인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은 ‘빨간불’ 평가를 받았다. 뉴스가드 측은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데일리 메일 측에 이메일과 유선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가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 발행인인 고든 크로비츠(Gordon Crovitz)와 스티븐 브릴(Steven Brill)이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과 퍼블리시스(Publicis, 프랑스의 다국적 광고 홍보회사)의 후원을 받아 2018년 설립한 ‘뉴스가드 테크놀로지’가 개발했다.



英 ‘뉴스 UK’의 광고마케팅 성공 전략은?

온·오프 광고영업 조직 통합과 독자 데이터 활용

미국 IT 전문 매체 디지데이(Digiday)는 지난 1월 21일 지면과 디지털로 분리돼 있던 광고영업 부서를 통합하고, 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마련한 ‘뉴스 UK(News UK)’의 전략을 소개했다. ‘뉴스 UK’는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더 선 등을 발행하는 영국 미디어 기업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지면과 디지털로 분리돼 있던
광고영업 부서 통합

‘뉴스 UK’는 지면과 디지털로 분리돼 있던 광고영업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통합 오디언스에 대한 통찰력, 즉 통합 잠재고객의 특징, 성향 등을 파악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고영업 조직을 통합하는 대신

두 명의 광고마케팅 책임자를 임명해 각각의 뉴스 브랜드를 관리하도록 했다.

독자 데이터를

①선호도 ②견해 ③정서 등
항목으로 분류

‘뉴스 UK’는 광고주에게 일관성 있고 명료한 광고 제안을 하고자 전략개발팀을 신설했다. 이러한 구조 혁신은 지난해 여름 언론사가 개발한 1차 데이터(조사자가 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수집하는 자료) 분석 도구인 ‘News IQ’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려는 비즈니스 계획에 따른 것이다.

‘News IQ’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독자여정 지도(customer journeys·독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도구로 독자가 제품·서비스를 사용할 때 경

험하게 되는 요소들을 독자 경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법)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 데이터를 ①선호도(preference), ②견해(opinion), ③정서(emotion) 등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독자 데이터 분석 결과는 언론사 구성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공개되며, 도출된 ‘단일 독자 관점(a single customer view·단일 독자에 대한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독자 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돕는 가공 데이터)’은 언론사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고객 이탈률 16% 낮추고
7,000명 이상의 가입자 확보

UK에 따르면, News IQ는 현재 400만 건 이상의 독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400개의

카테고리 및 주제별로 구분된다. 400만 건의 독자 데이터에는 ‘더 선’이 운영하는 ‘£9.50 Holidays(여행 예약 웹사이트)’의 260만 명이 넘는 여행 고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타임스의 경우, 구독 선호도 및 의견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이탈률을 16% 낮췄고 7,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News IQ’ 도구는 현재 언론사 내부적으로 데이터 통찰력을 얻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후 모든 광고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테스트하는 소수의 광고주 파트너가 있지만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엔더스 분석업체의 CEO이자 미디어 전문가인 더글라스 맥케이브(Douglas McCabe)는 “구독, 멤버십, 소액 지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등과 같은 구독 수익에 중점을 둔 언론사는 ‘단일 독자 관점’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상 50건 응모

신문협회가 지난 1월 31일까지 2019년 한국신문상 후보작을 공모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50건의 후보작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취재보도 부문은 14개 회원사에서 22건이, 기획탐사보도 부문은 22개 회원사에서 28건이 각각 접수됐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최대 2건(뉴스취재보도부문 재경회원사 1건, 지방회원사 1건, 기획탐사보도부문 재경회원사 1건, 지방회원사 1건)이며, 수상자들은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500만 원씩 받는다.

수상자는 3월중 신문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 신문사 지면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4월 4일(목) 열리는 제 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갖는다.

회원사 동성

국민, 드림위드양상블 등과 업무협약
국민일보(발행인 변재운)는 1월 29일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양상블, 재단법인 공공정책연구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매경, 제49회 이코노미스트상' 공모
매일경제(발행인 손현덕)는 '제49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2018년 이후 발표된 경제·경영 논문이며, 접수마감은 2월 28일 까지다.

문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문화일보(발행인 이병규)는 인천항 제8부두에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4월 17~20일 개최한다. 대상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도시재생 관련 민간단체 등이다.

전자, 비스제와 MOU 체결
전자신문(발행인 구원모)은 1월 30일 삼성동 오쿠드 호텔에서 글

로벌 블록체인 통신사 비스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과 중국, 글로벌 시장으로의 블록체인 매체 플랫폼 사업 등을 협력한다.

한국, 판교 웹진 발행

한국일보(발행인 이준희) 경기본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지난 1월부터 판교웹진을 발행했다. 판교웹진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동향, 문화행사, 구인구직 등의 소식을 다루며, 격주로 발송된다.

헤럴드, '대한민국 유아·아동 산업대상'
헤럴드경제(발행인 권충원)는 '2019 대한민국 유아·아동산업 대상'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임신부·유아·아동교육 제품 및 브랜드 등이며, 접수마감은 2월 28일이다.

경남일보, '진주남강마라톤대회'
경남일보(발행인 고영진)는 '2019 진주남강마라톤대회'를 3월 31일 개최한다. 종목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건강달리기이다.

경상, '제17회 울산커피마라톤대회'
경상일보(발행인 엄주호)는 '제17회 울산커피마라톤대회'를 4월 21일 개최한다. 가족, 연인 등 남녀 구분 없이 2인 1팀이다. 종목은 10km, 5km, 접수는 3월 13일까지다.

영남, 'CEO 아카데미' 회원 모집
영남일보(발행인 노병수)는 'CEO 아카데미' 제19기 회원을 모집한다. 1년 과정(1학기 3~6월, 2학기 9~11월)이며, 주 1회 본사에서 열린다.

충투, '3·1절 자전거대행진'

충청투데이(발행인 정남진)는 '3·1절 자전거대행진'을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3월 1일 개최한다. 참가자에게는 간식과 태극기가 증정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라, 제주CBS와 MOU 체결

한라일보(발행인 김용구)는 1월 29일 제주CBS와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사의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기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일보 새 발행인에 강영욱 前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대전일보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 발행인 겸 대표이사에 강영욱(사진) 前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선임했다. 취임식은 11일 본사에서 열렸다. **약력** ▲충남대 법학과 졸업 ▲특허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재판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부산일보 새 발행인에 김진수 前 상무이사



부산일보는 1일 제71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새 발행인 겸 대표이사 사장에 김진수(사진) 前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취임식은 7일 본사에서 열렸다. **약력** ▲부산대 영문학과 졸업 ▲부산일보 사회부장, 경제부장, 편집국장, 상무이사

"디지털 미디어 역량 키우자"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세계일보(발행인 정희택)는 11일 롯데호텔에서 창간 30주년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정희택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서른 살, 세계일보는 초심으로 돌아가 창간 정신을 재무장해 조국통일의 정론지로서 신통일한국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일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합작업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디지털 미디어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인 동성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1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머니투데이 경제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최영범 아시아경제 발행인은 1월 31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9 아시아소비자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곽재선 이데일리 발행인은 1월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권충원 헤럴드경제 발행인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브랜드 대상'에 참석해 시상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은 1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출향 강원공직자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희중 강원일보 발행인은 1월 31일 본사에서 열린 '제34기 강원일

보어린이합창단 졸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최광주 경남신문 발행인은 지난해 12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최윤재 경북매일 발행인은 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시루떡을 커팅했다.

남상현 대전일보 발행인은 1월 22일 본사 1층 북합문화예술공간 랩

마스에서 열린 '제29회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를 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은 1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니어매일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임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은 7일 본사에서 열린 '2019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최윤정 중부일보 발행인은 1월 2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사를 했다.

김용구 한라일보 발행인은 1월 24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19 신춘문예 시상식과 문학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쇄(주)
www.korink.com